

새롭게 출발하는 달
선교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성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아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성기아 사방에서 와서… 물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37:9

세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는 해

예배 WORSHIP

January 24,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사역과 행사 안내

하나님 앞으로

-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 예배기도 / 박진성 집사
-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 성경말씀
- 호세아 5:5-15
- 겸손의 이유**
-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 결단의 찬송 / 찬송 212장 -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통일찬송 347장)

헌신과 나눔

- 봉헌 / 최선윤 집사, 김훈태 집사
-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 보냄의 찬양 / 가서 제자 삼으라
- *
- 축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섭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시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찬양예배

합심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여호수아 14:6-15

갈렙의 소망 —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경과 화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월은 “새롭게 출발하는 달”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힘차게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가 됩니다.

1. 2021년 한 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변화합시다.**
2. **선교주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자,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3. **온라인 예배** 주정부의 방침으로 zoom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선교주일(31)** 해외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5. **공동의회** 2월 7일 주일에 가질 예정입니다.
6. **2세 신양교육** E-Learning의 환경 속에 있는 자녀들의 학업과 신양 교육을 위해 기도합시다.
7. **성경 읽기** 교회 웹사이트에 매주 성경읽기/문제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섬김이: 장경미 사모, 성경공부 / 박진성 집사, 웹사이트) 말씀 공부에 힘 더욱 쓰시다.

1월의 사역 - 신년감사주일(1/3), 선교주간(24-30), 선교주일(31)

♥**성인 축하**♥ 영준 Andrew(7) 이진아(8) 강현 Caleb(20) 정홍렬(21) 민성 Joseph(26)
윤정 Jenny(28) 혜영 Jessica(29)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 기도 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화 & 목 / 이사야서)의 발전을 위해

예배 섬김 이

주일예배기도	1/17	1/24	1/31	2/7
	고순제전도사	최내권집사	박진성집사	김훈태집사
금요예배기도	1/22	1/29	2/5	2/12
	구 민집사	구은강집사	오정은집사	최선윤집사
주일헌금위원	1/17	1/24	1/31	2/7
	김훈태집사/최선윤집사		홍현근집사/유동숙집사	
주일안내위원	1월			2월
	최내권집사			구 민집사

말씀노트

말 쓰 노 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생명의 길 vs 멸망의 길 / 호세아 4:11-14

살다보면 나태해진다. 한 발을 세상에 들여놓고 잠시 들여다 볼 때가 있더라도 다른 한쪽 발은 세상에 들여놓으면 안 된다. 세상과 가까워 짐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이다. 사람은 항상 한결같을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은 세상을 가까이하도록 교회와 성도를 집중 공격한다. 하지만 한결 같으신 하나님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 회개하자. 울타리가 되는 말씀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이 울타리를 넘어가 불필요한 고난을 지났다. 삶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인 돈은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아니다. 모든 물질은 발아래, 이웃은 눈높이에, 하나님은 눈 위에 모시기를 결단해야 한다. 분명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음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각성하자.

겸손의 이유 / 호세아 5:5-15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

하나님의 대한 무지의 결과는 교만

교만을 뉘우치지 않는 결과는 환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겸손의 이유 / 호세아 5:5-15

우물 안에서 그 좁은 곳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개구리는 교만하기 쉽다. 반면, 높고 넓은 산에 살면서 많은 것을 체험하는 백두산의 호랑이는 자신보다 더 세고 무서운 것이 많다는 것을 알기에 교만하지 않는다. 현대는 긍정의 힘을 강조하며,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말한다. 이런 세태에서 겸손은 점점 더 찾기 힘들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강조한다.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낫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함을 깨닫게 만든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해 이스라엘은 교만해졌다. 만유의 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며 하나님 없이도 잘 살수 있다고 착각했다.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잊고, 부귀와 권세에 안주했다.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의 경계표시도 임의로 옮겼다. 하나님은 교만한 눈을 제일 원치 않으신다. 따라서, 성도의 눈에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한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허상, 교만의 첫맛은 아주 달콤하다. 그러나 교만의 끝 맛은 쓰다. 이스라엘의 기업 땅은 황무하게 되며, 백성들은 학대받고 압제 당했다. 조용히 미세하게 진행되는 교만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책망으로 각종 우환을 당할 때, 동맹을 맺고 도움을 요청했던 앗수르와 바벨론에게 오히려 멸망당했다(5:14). 즉, 하나님은 앗수르와 바벨론을 회초리로 사용하시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교만을 일깨우셨다.

교훈은 교만이라는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준다. 교만으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장 빠지기 쉬운 시험이 교만이다. 아무리 경계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기”까지 기다리셨다(5:15). 혹시 고난을 겪는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자. 이스라엘처럼 축복과 풍요 속에 묻혀,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져 하나님을 떠나면 징계를 받는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 인생은 망가진다. 인생의 곤고한 날에는 늘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만큼 더 겸손해진다.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의 칭찬과 사람들의 존경을 더 받게 된다. 예외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에 교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겸손으로 무장하자. 이웃을 위한 섬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겸손으로 완전무장하고 이웃에 덕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영적 침체 -- 마귀는 생각으로 공격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도 영적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던 능력의 종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어 달라면서 죽기를 바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제자들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버리고 이전 개인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다는 자괴감과 실패감이 그들을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왔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시편 42편을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의 영적 침체를 나타내줍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빈정거리며 조롱하는 말에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슨 거창하고 엄청난 일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작은 말 한마디에 넘어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뜻을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을 통로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생각을 분별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이 안다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추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 또한 우리의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 안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면 어떤 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또는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붙잡고 품어야 할지, 어떤 것을 거부해야 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슬픈 생각,
자기 연민, 우울증, 포기하고 싶은 마음, 온갖 음란한 생각 등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을
살피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 여겨지는 것은 단호히 거부하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믿어지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꼭 기록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성경의 진리와 맞는지 기도하며, 확인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바꾸고, 영적 침체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하십니다.

유기성 외 (김은창 목사), 한 시간 기도로 살기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부종할지이다.”

너의 향기는
너의 마음에서 나온다

Let this mind be in you,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부록부록

내 마음 속, 예수님... 내 발걸음 닿는 곳마다 향기되어 흘러가길.

- 박선하 작가 -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숙 전도사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 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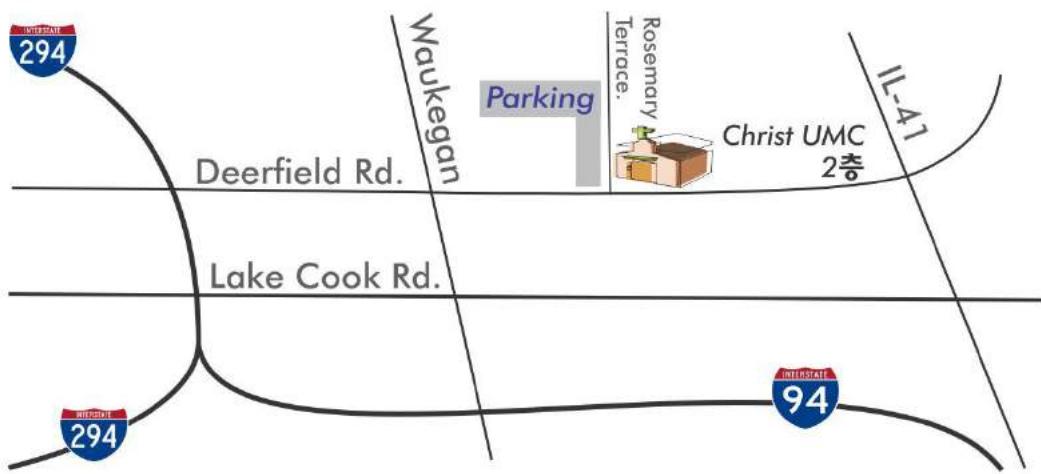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